

## 한-우크라이나 비즈니스포럼 주제발표 및 우크라이나 시장현황 조사

- 심영섭 선임연구위원 (국제산업협력센터)

1. 출장자 : 국제산업협력센터 심영섭 선임연구위원
2. 출장지역 : 우크라이나 KIEV
3. 출장기간 : 2011-09-29 ~ 2011-10-02
4. 출장목적 :  
한-우크라이나 비즈니스포럼 주제발표 및  
우크라이나 시장현황 조사
5. 조사내용 :  
우크라이나 경제 현안 및 현황

<개 팔>

우크라이나 경제는 지금 IMF 위기 상태

- o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상태이나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의 추가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o 우크라이나는 2010년 7월 28일 IMF의 대기성 차관(총 151억 5천만 달러, 지원기간 2.5년) 지원에 합의했으며, 즉시 IMF로부터 19억 달러를 지원(집행)받음. 2010년 12월에는 2차로 15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았음.
- o IMF 권고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국내 가스 공급가격 추가 인상, 연금 부문 개혁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하나 그 추진 시점과 규모가 불명확해 차관의 3차분(15억 달러) 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 여성의 퇴직 연력을 현재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이 2010년 12월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친정부 노동조합의 거센 반대와 여당의 의지 부족으로 금년 6월에야 검토를 시작했음.

총외채잔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한 수준

- o 우크라이나는 2008년까지 경기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 및 기업의 해외 차입이 크게 증가해 총외채잔액이 2005년 말 33억 달러에서 2008년 말 1,017억 달러로 급증함.
- o 2008년 하반기 이후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되었으나 2008~09년 총외채잔액은 1,0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2010년 말에는 총외채잔액이 1,129억 달러로 추정됨.
- o 2008~10년 중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8년 56.5%에서 2010년 81.9%로 상승했고,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의 비중도 2008년 111.7%, 2009년 175.5% 및 2010년 152.6%로 연도별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10년에 35% 수준

- o 2009년 DSR은 총수출 감소로 40% 수준을 상회함. 2010년에는 총수출이 증가하면서 DSR이 35%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풍부한 광물자원 및 CIS 국가 중 2위인 인구규모가 큰 자산

-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 영토 면적 기준 3위의 국가로 철광석(매장량 세계 1위), 망간(매장량 세계 1위), 석탄(매장량 세계 6위), 우라늄(매장량 세계 10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음.
- CIS 국가 중 2위 규모인 4,576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편임.

국내 가스 공급가격 인상 조치 등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 진행중

-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 권고에 따른 가스 소매시장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2010년 7월 가스 공급 가격을 2010년 8월 1일자로 50% 인상하기로 결정함.
- 가스 공급가격 인상조치에 따라 국영가스공사인 나프토가즈(Naftogaz)의 취약한 재정상황 개선과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4월 IMF 권고에 의거 가스 공급가격을 추가 5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인상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

<산업구조>

개황

- 2010년도 기준으로 산업구조는 농·임업이 8.2%, 제2차 산업이 29.4%, 제3차 산업이 62.4% 차지
- 광업 및 제조업이 75.9%(에너지광물 12%, 제조업 63.1%), 유틸리티 산업이 24.1%
- 2010년도에 제조업으로는 철강산업(22.3%), 석유화학산업(6.4%), 목재가공업(0.6%), 기계산업(10.1%), 섬유(0.5%), 식품가공업(12.8%) 등
- 철강, 우주, 항공, 조선분야 등은 세계 10위권

철강산업

- 철강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체 2차 산업생산의 약 1/4 및 총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2010년 조강생산량은 33,559천톤(세계 8대 철강생산국)
-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은 반제품 및 저부가가치 제품위주로 생산되고 있어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냉연제품 등 고부가 제품 생산시설 구축이 당면 과제

## 항공산업

- 항공기를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할 수 있는 세계 8대 국가 중의 하나로서,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70여개, 전문 인력이 8만 여명에 달함.
- 키예프 인근에 소재하는 항공기 설계 및 성능시험 회사인 안토노프(Antonov) 사는 화물 및 특수항공기 설계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으며, 동 항공기 제작은 하리코프 소재 국영 항공기 제작회사와 키예프 인근 소재 아비안트(AVIANT)사에서 맡고 있음.

## 우주산업

- 우주발사체를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세계 7~8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우주선 및 발사대 설계연구센터 7개, 우주선 제조 기업 12개, 기타 전문 업체 13개사임.
- 우주선 설계는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소재 ‘피브데네(Pivdenne) 디자인 사무국’에서 맡고, 제작은 동일 지역 소재 ‘남부 기계 제작소(Southern Machine-Building Plant)’에서 맡고 있음.
- 우주선발사 통제장치 디자인 및 제작은 하리코프, 키예프, 체르니기프 등 3~4개 도시에 분산된 전문 업체에서 수행
- 현재 5가지 종류의 우주발사로켓(Zenith-3SL, Zenith-2, Cyclone-2, Cyclone-3, Dnipro)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브라질, 유럽 국가와 함께 우주선 발사대 공동 제작 사업에 참여
- 2010년 말 현재 총 119개의 위성 발사 프로젝트에 참여

## 조선산업

- 9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으며, 항공모함, 화물 수송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 중대형 트롤러선, 초고속 여객선, 침투용(2~3인승) 잠수함, 특수함 생산에 비교우위 보유
- 니콜라예프 초르노모르스키 조선소는 유럽 최대로, 러시아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을 제작

## 에너지산업

- 14개 화력발전소(발전용량 총 31GW), 8개 수력발전소(드니프로 강내 7개, 드니에스테르 강내 1개, 발전용량 총 4.7GW), 12개 우너지력 발전소(4개 지역 소재, 발전용량 13.8GW) 보유

- 석유는 정유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석탄은 열악한 채탄 여건과 안전 대책 소홀 등으로 매년 200여명의 인명피해 발생
  - 환경측면에서 연료산업이 대기오염의 45%, 해양오염의 25%를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
  - 연료분야 민영화 진척률이 27.6%에 불과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 미흡
- 러시아의 대외 가스수출 중 90%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경유하나, 가스수송관1/3이 2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며 절반 이상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
  - 2010년도의 경우, 가스 20%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80%를 대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수입중 약 70%가 에너지

## 농업

- 우크라이나 국토(한반도 3배 면적)의 80%가 경작 가능하고, 그중 60%가 비옥한 흑토지대로서 유럽의 Bread Basket로 불리며 대부분 기계 영농
- 2010년 곡물 총생산량은 3,900만톤이며 곡물 총 수출액은 2,467만달러, 세계 4위의 곡물 수출국(2011년 곡물 수확량은 약 5,000만톤으로 추산)

## 산업의 특징

-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취약한 소비재 산업기반
  - 우크라이나 경제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주로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철강 제품이 총수출의 30%이상을 차지해 철강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함.
  - 정부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생산 기반, 교통 인프라 및 시설 기반 등이 미약한 편이며, 구소련 시대에 각광받았던 항공, 우주 분야 등의 국제경쟁력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

<우크라이나의 외국인투자 동향>

개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유치	16,890	21,607	29,542	35,616	40,053
해외투자	219.5	243	6196	6203	6226

국별 동향

- o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투자국가는 탈리시아 및 친서방 정책에 발맞춰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서유럽 국가와 미국 등임
- o 유럽과 미국지역의 자본들이 사이프러스와 버진아일랜드 등의 offshore company를 통하여 투자되는 규모가 상당하다. 아울러 경제적 연결 관계가 깊은 러시아의 투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투자환경

- o 세계은행 그룹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2010년 11월 3일 발간한 자료 'Doing Business 2011 : Making a Difference for Entrepreneurs'에 따르면 기업운영용이성을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는 조사 대상 183개국 가운데 145위로 전년 147위에서 두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건축허가 취득, 조세문제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한-우크라이나 교역관계>

- o 우리나라는 양국 간의 교역에서 2005년 이래 2008년까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양국가 sry역 규모가 26억달러(9억5천만달러 흑자)였으나 2008년 우크라이나 금융위기 후 2010년 15억 달러로 격감(6천6백만달러 적자)

- 2011년도 상반기에는 수출(5.8억달러)이 늘어나고 흑자로 전환 추세

한-우크라이나 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1-7)
수출액	1,773	426	714	582
증가율	14.7	-76	67.5	67.6
수입액	824	792	779	369
증가율	179.8	-3.8	-1.7	-16.0
무역수지	948	-366	-65	213
총교역량	2,597	1,219	1,493	759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출입품목(2010)

(단위: 천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221,057	130.4	강반제품	20,247	86.4
2	합성수지	64,710	-7.1	사료	136,444	-64.2
3	자동차부품	58,939	76.9	합금철	125,762	8.7
4	냉장고	35,454	183.8	선철	30,033	69,614.5
5	무선전화기	28,654	459.0	선박	26,632	16,293.3
6	진공청소기	25,752	122.4	기타비철금속제품	10,687	661.4
7	편직물	20,974	35.6	원동기	9,155	1,973,006.7
8	아연도강판	19,328	112.7	안료	6,735	8.0
9	타이어	17,761	32.2	반도체제조용장비	5,428	-
10	원동기	14,472	72.0	펌프	5,393	41,605.0
합계		714,221	67.5		779,726	-1.7

- 對우크라이나 수출에 있어 자동차 및 차량부품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TV,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특수합금철, 의료용 전자기기, 플라스틱 제품도 증가세로 교역확대에 기여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강반제품, 합금철, 중후판 등이며 2008년부터는 사료용 곡물, 비철금속 제품 및 정밀화학 원료,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도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등장

<한-우크라이나 투자관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누계
투자건수	2	2	3	15	2	7	60
투자금액	414	270	325	5,577	80	95	251,14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011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투자는 총 60건에 투자액이 2.5억 달러에 달하며, 자동차, 이동통신, 교환기, 가전제품 판매 등이 주종
-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는 현대·기아 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합상사 및 현대 로템, 영산코퍼레이션, 대우인터내셔널 등 20여개의 지상사가 활동 중

주요 투자 기업리스트

기업명	업종	제품	진출형태	종업원수	진출시기
삼성전자	전자	가전, AV, IT	판매법인	137명	1996년
LG전자	전자	가전	판매법인	160명	1996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전자	전기전자, 정밀부품	판매법인	12명	2003년
현대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부품	연락사무소	10명	2008년
기아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부품	연락사무소	9명	2008년
대우인터내셔널	무역	종합상사	연락사무소	9명	2010년
현대종합상사	무역	종합상사	연락사무소	미정	2011년
국민은행	금융	금융서비스	연락사무소	2명	2007년
범한판토스	물류	물류서비스	현지법인	20명	2005년

우크라이나의 對韓 투자현황

(단위: 건, 천달러)

연 도	2007	2008	2009	2010	누계
신고건수	2	2	1	1	6
신고금액	109	390	37	40	576

<한-우크라이나 협력 현안>

광물자원 분야 협력

- o 우크라이나는 철광석 및 망간 매장량 세계 1위, 석탄 매장량 세계 6위 국가이며, 광업 부문은 GDP의 10% 차지, 노동력의 3% 종사
- o 양국은 광물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광물자원분야 협력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2011.3월)
  - 광물협력 MOU 및 CA(광물공사↔우크라이나 환경천연자원부), 광물조사 및 연구협력 MOU(지자연↔우크라이나 지질조사소)
- o 광해방지협력 MOU 체결 추진중(광해관리공단↔우크라이나 환경천연자원부)
  - 광해방지협력 MOU 체결 현황 : 8개국(미국, 영국, 호주, 베트남, 라오스, 태국, 키르기스스탄, 몽고)

### 유전 및 가스전 분야 협력

- 우크라이나는 가스 매장량 23위, 석유 매장량 45위로, 국내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자국 내 소비용도로 개발될 여지가 큼.
  - 가스매장량 : 33.0Tcf, 석유매장량 : 4억 배럴
- 우크라이나 유전 및 가스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상광구들은 대부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우크라이나가 개발하고자 하는 해상광구에서도 현재까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발견이 이루어진 바 없음.
  - 세계 가스 매장량의 0.5% 보유(2010년 확인매장량 기준), 원유는 이보다 미미
- 최근 국영석유회사인 Naftogaz Ukrainy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육/해상 개발 노력이 본격화
  - 내각 교체 때마다 광권 관련 규정 개정, 광권 소유주 변경 등 투자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미국 Vanco Energy와 2005년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치상황 등으로 탐사작업이 지연되자 2008.5월 광권 박탈

###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 우크라이나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목표 16% 설정, 풍력 발전 터빈 제작 등 동 분야의 양국 협력을 희망
  - 우크라이나 에너지원 구성: 천연가스(49%), 석탄(24%), 원자력(14%), 신재생(1%)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목표 16% 추진 : 수력(65.4%), 폐기물(34.4%)에 집중(기타 2%)
  - 추진중인 프로젝트 : 태양광 패널 공급사업(현대중공업), 우크라이나 오지리社측에 3천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 공급, 향후 1억달러의 패널 추가 판매 협상 중
  -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서쪽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①풍력발전 제조업체들의 현지 진출 지원 ②발전사의 경우, 전력구매자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희망
- 한국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제주 실증단지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증 중
  -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실증경험 공유, 인력교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

### 원전 분야 협력

- 원전 설비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 부도 위기 등으로 신규 원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원전 15기 운영(13,800MW), 전체 발전량의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2기 건설 중(호멜리스크 3, 4호기 건설 재개 사업)
  - 운영 또는 건설 중인 원자로는 모두 러시아 노형(VVER)
  - 2030년까지 16,000MW 규모의 신규원전 도입 및 기존 원전 설비의 계속 운전 추진 검토
  
-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원전 추가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희망
  - 한전측은 우크라이나의 ①원전분야의 러시아 편향성, ②불확실한 신규원전 건설계획, ③재원조달 문제 등을 고려, 원전 협력 불추진 결정
  - 우크라이나는 2030년까지 원전 설비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나, 국가 부도 위기로 신규 원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한전이 원전 건설 재원 전액을 부담, 건설후 25년간 정부가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희망
  - 우크라이나가 운영·건설 중인 원전은 모두 러시아 노형이며, 원전설비, 연료조달, 폐기물 관리 등 전 부문에서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

### LED 분야 협력

- 우크라이나는 LED산업을 차세대 신성장산업분야로 선정,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모색 중
  - 프로젝트 : 한국의 서울반도체와 우크라이나의 2개 업체가 LED 협력 MOU 및 NDA(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2011.5월), POSCO LED는 우크라이나 과학기술 정보청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생산공장의 설립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

### 농업 분야 협력

- 우크라이나는 옥토·기후 등 천혜의 농업자원과 선진 영농기술을 보유,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
  -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2.7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의 60%가 비옥한 흑토로, 세계 7위의 주요 곡물생산국(과거 '소련의 빵주머니'라는 별명)일 정도로 농업 잠재력이 풍부
  
- 우크라이나측 구체 협력 제안분야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부: △낙농공장(젖소 3,300두), △작물생산 및 가공(토지 10ha), △토마토 산업개발 등 3개 사업에 있어 협력 희망
- 우크라이나 고려인협회: △농산물 유통센터 및 저온저장창고 설립 지원(250만달러), △영농 및 농업유통 전문가 파견 등 요청

○ 롯데상사·POSCO 등이 우크라이나 농업 진출의 사업성 검토 중

- POSCO, 니콜라예프 오카코프(Ochakov)港 개발사업과 연계, 곡물수출터미널 건립사업(15억달러 규모) 참여 검토
- 롯데상사, 니콜라예프·오데사 등지에 농작물 저장창고 건설 검토

○ 양국간 농업 협력시 영농, 축산, 유통센터 및 저온창고 건립, 농축산물 가공업 등이 유망, 우리 농업자본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해서는 양국 농림부간 농업협력 MOU 체결 필요

#### 건설 및 토목 분야 협력

○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함께 ‘2012 유로컵’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우리 정부와 협력 희망

- 2012년 유로컵 대회 준비는 우크라이나 최대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국제경기 유치경험 공유 희망

○ 경기장·연습시설 등 신축 및 개조, 공항 증축·개조, 철도·도로시설개조, 대중교통, 숙박시설 현대화 등 관련 건설 프로젝트는 약 248억달러 규모로 추산

- 경기장, 도로, 대형숙소 건설 등은 주변국(터키) 및 자국 업체가 기수주, 정부발주형 도급공사의 경우 자국 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 업체 참여 제한

○ 우크라이나의 구체적 협력제안

- 우크라이나 건설부: 한국 건설기법과 선설 신자재 생산 등 관련 협력 희망
- 우크라이나 교통환경부 및 키예프 시청: 키예프 시내 인프라 구축 관련 협력 희망
- 우크라이나 국가프로젝트 경제개혁위원회: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LNG터미널 건설 사업(40억달러 규모)에 한국 참여 희망

#### 우주 및 항공 분야 협력

○ 우크라이나(중앙정부, 우주항공청, 유즈노예社)는 우리 정부에 우주항공 첨단기술 분야 공동개발 및 기술전수 등 러시아와 차별되는 개방된 협력 제안

-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등 고려, 현 시점에서는 유보적 입장이나, 우크라이나의 우

수한 우주항공분야 기술 감안, 동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검토

- 우주항공분야 강국인 브라질이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동 분야 협력을 강화

<기타 참고사항>

- o 김황식 총리께서는 한-우크라이나 비즈니스포럼 축사를 통해 향후 농업, 신재생에너지, 항공 및 우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
- o 현지에서 비교적 성공한 한국의 중소기업인(영산코퍼레이션 사장)은 우크라이나의 잠재력을 ‘동구의 베트남’이라고 평가함.